

□ 대통령상(1점)

품종명(작물명)	품종사진	수상자	상세설명
피엠알아이조은 (수박)		(주)파트너종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내외 유일의 흰가루병 저항성 씨없는(3배체) 수박으로 고당도(12~14브릭스) 및 우수한 식감으로 소비자들이 선호 ○ 국내 주요 씨없는 수박 재배면적의 47% 차지 및 '21년부터 스페인에 종자수출(3.6만달러) 중으로 '25년까지 누적 45만달러 이상 기대 * 충남 부여/논산/공주, 전북 익산/고창 등

□ 국무총리상(2점)

품종명(작물명)	품종사진	수상자	상세설명
알피-1 (청경채) *수출상		아시아종묘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잎의 자색이 진해 어린잎 채소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으며, 더운 기후에도 재배가 쉬우며 종자 순도가 높아 농가 선호도가 높음 ○ 청경채·경수채 전체 수출액(443만달러) 중 41%를 차지 * 최근 5년 누적 182만달러
킹콩 (양파)		(주)제농 에스앤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양파모양이 원형으로 일정하여 상품성이 높고 단단해서 저장성이 우수 ○ 종자가격이 일본품종 '카타마루' 대비 17% 저렴, 수량성이 우수하여 일본 수입품종 대체의 종만생종 다수확 품종 * '킹콩' 10만원/100g, '카타마루' 12만원/100g * '킹콩' 35kg/평, '카타마루' 32kg/평

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(5점)

품종명(작물명)	품종사진	수상자	상세설명
루비에스 (사과)		국립원예특작 과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인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소과종 ○ 열매숙기의 노동력 절감, 수확전 낙과가 적어 생산자 선호 ○ 일본품종대비 과육의 비중이 커 (과중 86g)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고, 식감이 아삭함
사비나 (복숭아)		요엘수목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황도 중에서 출하시기가 가장 빠름(6.16일경 첫 출하) ○ 당도가 높고 쉽게 무르지 않음 ○ 추위에 강하고,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하여 생산비와 노동력 절감
새금강 (밀)		국립식량 과학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발아 현상이 적고, 붉은곰팡이병에 강한 다수확 품종 ○ 국수 제조시 면색이 밝고 식감이 부드러워 국수가공원료로 우수 ○ 재배면적 점증으로 수입대체의 국산 밀 자급률 향상에 기여 <p>* ('21) 1,881ha, 밀 전체 재배면적의 37% 차지 → ('22) 3,286ha, 43%</p>
여름향1호 (팽이버섯)		충청북도 농업기술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생육온도 범위가 넓어(4~16℃) 냉방비 및 난방비 절감형 버섯 ○ 아삭한 식감으로 이에 잘 끼지 않아 어린이, 노약자, 환자식에 적합 ○ 유럽, 미국, 호주 등 버섯 수출 누적 ('16~'21) 103톤, 30만달러
제이씨씨엠-02 (멜론) *혁신상		장춘종묘(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(혁신성) 과육이 오렌지색인 국내 최초 칸탈로프 멜론 ○ 배꼽크기가 작아서(0.5cm) 상품성 및 저장성 우수 ○ 베타카로틴 고함유로 혈관건강, 숙취해소 등 건강보조 가공식품으로 제조 판매 중